

식약처, 비관세장벽 해소로 K-푸드 세계시장 진출 지원

-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개최, 수출 현장 애로 청취
- 중국에 일시적 수출 제한됐던 비타민 음료 제한 해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과 함께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외 식품안전 규제로 인한 비관세장벽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25일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등 유관기관과 수출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주요 수출국의 식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국 천연색소 등재 및 용도 확대 지원 ▲몽골 수출을 위한 규정 번역 ▲일본 발효식품을 포함한 냉동식품의 세관수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수출 등록 지원 요청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과제를 발굴했다.

식약처는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은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의, 정부 간 협력 채널,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규제외교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지원해 왔다. 중국 해관총서*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식품 수출기업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 자연산 수산물 신규 수출 시 위생평가 면제를 이끌어내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에 기여해왔다.

*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 등을 수행

특히 중국 해관총서와의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협력 채널을 활용해 중국 정부의 행정적 절차상 오해로 인하여 수입금지 조치됐던 비타민 음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오유경 처장은 “비관세장벽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규제협력을 강화해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박재우 (043-719-2023)
담당 부서	식약처 소비안전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창근 (043-719-2451)
		담당자	사무관	최은주 (043-719-2461)
협조 부서	식품안전정보원 글로벌정보부	책임자	실 장	이희정 (02-744-8147)
		담당자	부 장	권소영 (02-744-8165)



□ **배경**

- K-Food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해 통상이슈 및 주요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

□ **회의개요**

- (일시) '26년 6월 25일 14:00~16:00
- (장소) 식품안전정보원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 (참석자) 식품 관련 협회, 수출업체, 농수산물유통공사(aT),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등

□ **주요내용**

- (정보공유) 식품 분야 수출 규제지원 현황, 수출업계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식약처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 (주제발표) '26년 상반기 주요 수출국의 한국산 식품 통관 부적합 사례 및 최신 규제 동향
- (토론) 수출업계의 통관 애로사항 수렴 및 대응 방안 논의
-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발표자
14:00	-	개회	식품안전정보원
14:00~14:05	(5)	인사 말씀	식품안전정보원
14:05~14:15	(10)	참석자 소개	참석자
14:15~14:25	(10)	식품 분야 수출 규제지원 현황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14:25~14:45	(20)	주요 수출국 K-Food 부적합 현황 및 주요국 최신 규제 동향	식품안전정보원
14:45~14:55	(10)	수출지원 관련 그간 식약처 추진사항 공유	식품안전정책과
14:55~15:55	(60)	식품 분야 수출 애로사항 논의	식품 수출업체
15:55~16:00	(5)	마무리 말씀	식품안전정책과